

SOLO SHOW: ON 2020.10.15-10.27

Gallery 000JH

의외의조합

이동훈

이동훈 (b. 1991)은 첫 개인전 《꽃이 있는 실내》(드로잉룸, 서울, 2019)를 개최했으며 《이공간, 그장소: 헤테로토피아》(대림미술관, 서울, 2020), 《호텔사회》(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20), 《눈깜짝할 새》(일우스페이스, 서울, 2020) 《XOXO》(누크갤러리, 서울, 2019) 등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다. 개념적이고 시의적인 방법론을 다루고자 했던 지나친 강박은 작업에 대한 나 자신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회의하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매체와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진 않았지만 노동집약적으로 천천히 작업해 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화가들이 그림을 연습하기 위해 화병을 정물 삼아 그렸던 것처럼, 조각을 연습해보고자 화병을 나무로 깎기 시작했다.

나무를 깎으면서 형태를 찾아가고 색을 입혀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갔다. 이 과정은 재료가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의 판단이 지속해서 형태를 결정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각을 채색하는 방식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 색채는 조각품 내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경계를 구분해주거나 구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 방법에 따라 형태는 이 과정에서 추상과 재현을 넘나든다.

조각가이자 화가인 나는 내게 또 하나의 대상이 된 조각된 화병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를 다루는 방식, 붓과 물감을 다루는 방식은 화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붓과 끌은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그림과 조각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재료의 성질을 의식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내는 유희를, 나는 그림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내 과제는 조각 작업에서 터득한 재료와 표현 방식 간의 개연성을 그림으로써 제시하는 것이다.

Donghoon Rhee

Donghoon Rhee (b.1991)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Room with Flowers at Drawing Room, Seoul²⁰¹⁹ and since then has participated several group exhibitions in Seoul. Donghoon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From 2015 to 2017, I tried to paint in various themes and methods. My excessive compulsion to deal with conceptual and timely methodologies made me question my own conduct and intention to work. I have not dealt with the medium and themes consistently so far, but I have found common ground in working slowly and labor-intensively. Just as painters observed the vase to practice painting and painted still life, I began to carve wooden vase to practice sculpture.

As I carved woods, I found joy in the process of making shapes and coloring them. This carving process has made my judgments and choices that persist within the extent of the material's acceptance to determine the form. And the way I paint sculptures is in line with the way I make paintings. Colors serve to distinguish or eliminate the boundaries of different parts within the sculpture, and depending on the method, the form covers between abstrac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process.

As a sculptor and a painter, I began to paint carved vases that had become another theme for me. The way the canvas is treated, the way the brush and paint are handled, is clear evidence of the painter's attitude. The brush and chisel have different ways of handling, and the painting and sculpture have their own way of being. The amusement that is conscious of the nature of a material and actively utilizes it. I want to embody it through painting. My current task is to present the probability between method of expression and material learned from sculpture work through painting.

의외의조합 : 이동훈

서울시 중구 동호로 17길 121
월-일 오후 12~6시
121 Dongho-ro 17-gil, Jung-gu, Seoul
Mon-Sun 12~6pm

tel. 02-2235-3560
email: ooojh.info@gmail.com
instagram: @gallery_000JH

SOLO SHOW: ON 2020.10.15-10.27

긴 고양이

2019
나무에 아크릴
187×50×48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SOLO SHOW: ON 2020.10.15-10.27

긴 고양이2

2019
나무에 아크릴
182×48×48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SOLO SHOW: ON 2020.10.15-10.27

화병

2020
나무에 아크릴
34×51×31 cm

2,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SOLO SHOW: ON 2020.10.15-10.27

화분

2020
나무에 아크릴
98×62×5 cm

5,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

SOLO SHOW: ON 2020.10.15-10.27

화분1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16.8×182.3cm

6,000,000 KRW



의외의조합 : 이동훈